

한국문학의 성과와 한계 가능하는 평론집들

작가·작품론 등 현장비평에서 거대담론의 비판적 검토까지 다양

을 가을 출판계에 문학평론집의 작황이 풍성하다. 차가운 분석력과 뜨거운 인문정신을 갖춘 비평가들의 발언이 우리문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현장비평에서부터 한국문학의 위기, 근대성과 탈근대성,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재검토라는 거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불투명한 세계전망 속에서 언어적 상상력과 현실사회와의 접경지대를 탐사한다.

황금가지의 장은수 편집장은 “최근 탈민족화·자본의 전지구화 경향과 함께 민족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90년대의 새로운 문학환경에 대한 자기점검과 반성이 평론가들의 적극적인 발언으로 표출된 것이다”고 분석한다.

이론비평과 현장비평 아우르는 성과

최원식·황병하·진형준 교수의 비평집은 현장비평과 아울러 새로운 사상적 경향과 이론에 대한 비평적 개입의 성격을 띤다. 최원식 교수(인하대)의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창작과비평사)는 민족문학론의 정통논객으로서 우리문학의 근대성과 동아시아론의 이론가가 그리는 성찰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값진 성과이다.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혁준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또다시 문제적 범주로 떠오른 ‘근대성(modernity)’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문학의 근대성은 비교문학적 시각과 내재적 발전론을 넘어서 국제적 시각을 통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갈파한다. 특히 근대 이전의 한국문학을 해명하려면 한·중·일을 아울러 파악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이 유효함을 역설한다.

한편 동아시아론에 대한 입론인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민중세상을 여는 제3세계 민중의 시각이 절실히 주장된다. 분단체제라는 엄중한 조건 속에서 서구와 동구, 동아시아식 사회주의와 동아시아식 자본주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대안의 대안을 모색해온 과정을 검토하면서, 분단체제의 전개과정 속에서 실종된 대안적 운동의 전통들, 특히 동학을 새롭게 재조명할 것을 제안한다.

을 가을 출판계에 문학평론집의 작황이 풍성하다. 이들 평론집은 우리 문학과 작가들이 더 이상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첨예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미시적인 현장비평에서 거시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90년대 문학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이 적극적인 발언으로 표출되고 있다.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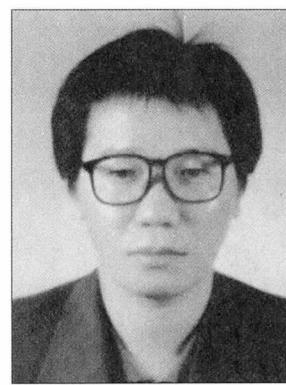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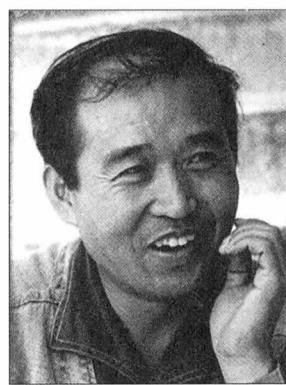
최원식 교수의 평문이 민족문학계열의 전망을 담고 있다면, 황병하 교수(광주여대)의 『메타비평을 위하여』(민음사)는 라틴 아메리카문학 연구의 성과를 한국적 상황에 창조적으로 투사시켰다. 『인문학적 도덕성의 타락과 비평의 죽음』에서는 한국문학의 위기가 이념대립적 사회구조의 와해, 한국 비평문학의 지나친 해외문학이론 의존에 따른 자기정체성 상실, 우리 문학비평계의 사적인 파당화 현상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아시아론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이 논의가 그 근본부터 경제논리에 의존함으로써 또 다른 제국주의적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주목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비평이 우리 사회의 비타협적·비합리적·비민주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전위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러한 풍토에서만 자생력 있는 ‘우리’의 이론들이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제언한다.

진형준 교수(홍익대)의 『이주 멀리 되돌아오는 길』(살림출판사)은 평론의 미덕이라 할 논리의 엄격성, 이론의 정연함에서 한발 물러나 에세이식의 자기성찰적 언어를 담고 있다. 『꽃을 떨궈 열매 맺을 때』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힘을 상실하는 데서 문학의 위기를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의 진정성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윗줄 왼쪽부터
최원식·진형준·황병하·
강형철·문홍술씨.



고 있다.

강형철의 『발효의 시학』(살림터)은 90년대 리얼리즘 시에 대한 현장보고서이다. 『비좁고 냉정한, 따뜻함의 세계』에서 90년대 현실에 대한 대응태도에 따라 우리 시단의 경향을 세가지의 갈래로 나눈다. 즉, 과도한 정신주의의 경향, 속류 현실주의의 경향, 그리고 환경 및 생태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 민족현실에 대한 계몽적 성격의 시, 그리고 올바른 의미에서의 현실주의 경향이 그것이다. 90년대 우리 시의 시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실감과 고통, 그리고 기쁨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일이라고 충고한다.

김윤식 교수와 문홍술은 우리 산문문학의 ‘선’ 자리와 ‘설’ 자리에 대한 비평의 단단함을 보여준다. 김윤식 교수(서울대)의 『소설 현장비평』(문학사상사)은 90년대 소설문학의 성감대 개척에 앞장섰던 소설가들의 공과를 엄밀한 비평정신으로 해부했다. 저자는 생리적 경험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의 시각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밀도가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제시한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언어가 의식을 드러내는 한계영역이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는
예영커뮤니케이션의 책들

글쓰기 백신



기존의 글쓰기 지침서들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고답적인데 비해 이 책은 부드럽고 실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좋은 덕목을 갖추고 있다. 한 번 백신을 맞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글쓰기에 대해 지적 받고 교정 받으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정우기/A5신/252쪽/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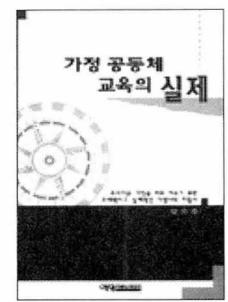
살려 쓸 우리말 4500
정우기/A5신/320면/6,500원

우리말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우리말 사전. 우리 언어는 민족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한 힘이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의 어휘력을 키우고 사전에 있는 낱말들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과 북한 말을 가려뽑아 체계있게 정리한 것이다.



카워, 그래도 나는 한국여자
설은주/A5신/256쪽/6,500원

뉴질랜드 이민 1세대로 20살 연상의 영국계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후 3남 1녀를 키우면서 민간외교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변경숙. 낯선 땅, 낯선문화 속에서의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삶의 체험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가정 공동체 교육의 실제
설은주/A5신/246쪽/6,500원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정사역 지침서이다.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가정사역의 모델과 방법들을 제시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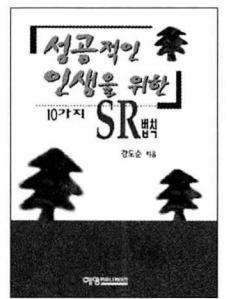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임성빈역음/A5신/284쪽
7,500원

이제 우리는 현대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못된 점은 걸러내고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문화 속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해 본 사람은 꼭 이 책을 펼쳐 보기 바란다.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키타 요시노리/정경룡/
B6(양장)/328쪽/7,500원

누구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SR법칙
강도순/B6/160쪽/4,000원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저자는 진정한 성공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칙의 10가지 원리는 참다운 성공을 바라는 이들 누구나 꼽씹어 볼 만하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 267-0161~4 출판유통사업부 T. 325-7971



므로, 이를 점검하는 것이 비평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문홍술은 한 달 사이를 두고 『자별과 회생의 소설문학』(열음사)과 『작가와 탈근대성』(깊은샘)을 연이어 내놓았다. 앞의 평론집은 세기말의 어두운 현실에서 대부분의 소설이 상품이미지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파시스트적 가속도의 열기에 혼혹되어 자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가열찬 정신으로 무장한 체 시대의 어둠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치면서 어둠 저 너머 강렬한 생명의 불꽃을 찾아가는 고독한 영혼들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생명의 빛이 흐르는 대지야말로 우리문학이 지향해야 할 시원의 공간임을 펼쳐보인다.

이 책의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는 『작가와 탈근대성』은 탈근대성을 실험하고 있는 소설가들의 작품론을 비평의 중심에 놓았다. 1부에서는 이해경·신경숙·최수철 등 공룡의 시대에 자본의 폭력에 맞서 고독한 구도의 길을 걷는 작가들의 내면세계를 열어보인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탐색하는 2부에서는 이기영·이상·박태원 등 일제 강점기의 소설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대

의 모순에 온몸으로 절망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고독한 작가들의 운명적인 모습을 그렸다.

문학 자체에 대한 비평적 안목 강화돼야

이 가을에 우리 평단의 입장으로 제출된 평론들은 우리 문학과 작가들이 더 이상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첨예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이해보다는 문학과 현실의 밀폐된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몰두했음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다.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고려대)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비평의 메타비평화 경향을 언급하면서, '메타비평은 문학이론의 정밀화에 기여하지만, 문학 자체에 대한 비평적 안목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문학적 척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타담론에 치중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문학의 위기, 비평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박천홍 기자